

스웨덴의 미투 운동 : 깨져버린 양성평등 선진국의 신화?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들어가는 말

양성평등 분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도 '미투' 운동의 열기는 시들지 않고 있다. 스웨덴 내 언론, 문화, 정치, 학계, 스포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된 미투 운동은 현재 70,000여 명이 넘는 여성의 지지를 받으며 더 큰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상태다. 특히 스웨덴의 미투 운동은 성범죄의 고발 및 제보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직위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뿐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양성 불평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미투 운동 전개와 평가, 정부의 대응을 살펴본다.

■ 스웨덴의 미투 운동 전개 및 평가

스웨덴에서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스웨덴 방송 TV4의 인기 방송인 마틴 티멜(Martin Timell)과 대표신문사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에서 활동했던 유명 칼럼니스트 프레드릭 비르타넨(Fredrik Virtanen)이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용기를 낸 여성들의 폭로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미투 운동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초기의 미투 운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성폭력 고

발자들이 각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현 혹은 업계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해쉬태그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계의 경우, 촬영 직전 감독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 #silenceaction을, 법조계는 #withwhatright, 음악계는 #whenthemusicends, 정치계는 #inthecorridorsofpower, 종교계는 #lettherebelight, 스포츠 분야는 #timeout을 사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해당 업계 피해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Bloomberg, 2017).

미투 운동 초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개인의 고발이 주를 이뤘다면 그 이후의 미투 운동은 몇몇 산업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미투 운동 참여자들은 소셜네트워크에 업계별 비밀 그룹을 만들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모임을 갖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례를 익명으로 수집하고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예로 연극, 영화, 오페라 분야에 종사하는 천여 명의 배우들은 탄원서를 통해 해당 산업에서 성범죄를 영구 추방하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후, 문화부 장관 알리스 바 쿤케(Alice Bah Kuhnke)는 스웨덴 국립극장과 왕립연극원, 왕립오페라단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알리스 장관은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약속했으며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모임도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The Local, 2017a). 법조계에서도 6,000명의 여성 변호사들이 단체로 법조계 내 성범죄와 차별 행태에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회사에 근무했던 한 여성은 타인의 법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이 조직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없었다며 법조계의 성차별적인 내부구조를 비판했다. 법 제도를 직접 만드는 정계에서도 약 1,300여 명이 미투 운동에 화답했다. 이들은 정계 내 미투 운동의 확산을 놓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평가하였으며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당한 부적절한 정치인의 총선 불출마,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였다 (Svenska Dagbladet, 2017).

한편 스웨덴 내 미투 운동의 확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수의 정책 연구자들은 그동안의 양성평등 정책이 스웨덴 내 미투 운동 확대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오사 레그네르(Åsa Regnér) 양성평등 장관은 미투 운동을 통해 나타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많은 이의 양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덕에 미투 운동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룬드대학 역사학과에서 여성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엠마 세베린손(Emma Severinsson) 연구원 역시 이번 미투 운동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스웨덴 사회가 가꾸어놓은 양성평등이라는 토양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스웨덴 정계에서 양성평등 이슈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점, 페미니스트 정당이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문제를 두고 다른 정당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던 점이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 2018).

이 밖에도 스웨덴 미투 운동이 지닌 연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된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미투 운동은 한 거대한 권력자 개인과 그에 의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폭로로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의 미투 운동은 개인 단위에서 다수의 여성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인구 천만 명에 불과한 스웨덴에서 7만여 명의 여성이 60개 이상 산업의 미투 운동에 서명하고 연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직위해제와 같은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웨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서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웨덴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및 인식 변화, 양성평등에 대한 더 나은 교육제도 도입, 내부고발자 제도의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Novus와 스웨덴 방송국 SVT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72%가 이번 미투 운동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응답했다(The Local, 2017b). SVT에서 실시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대기업 고용주와 산별 노조대표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는데 근로자 1만 명 이상의 대기업 28개의 고용주 중 22명과 10개 노조대표 중 9명이 이번 운동이 장기간 지속될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응답했다(Bloomberg, 2017).

■ 정부의 대응

양성평등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 OECD는 2014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비교 조사해보았다. 조사대상국의 법제도를 0-1 범주(0은 직장 내 여성을 향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1은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로 측정된 결과, 스웨덴은 .25로 나타나 비교적 법적 보호장치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4). 성적 괴롭힘과 관련한 스웨덴 내 법적 근거는 2008년 도입된 차별방지법(Diskrimineringslagen, 2008: 567)에서 찾을 수 있다. 차별방지법은 직장 내 양성평등 및 괴롭힘 방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모든 고용주가 사업장 내 양성평등 확대를 목표로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사업장 내 모든 차별을 금지함과 동시에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방지법 외에도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을 고발한 내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고발자법이 2017년 1월 도입되었고, 2016~17년 동안 차별방지법 내 직장 내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범죄를 비롯, 일반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방식 선진화를 돕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경찰청에 2017~20년간 총 98억 크로나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적 괴롭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정부의 재원 투입도 있었다. 정부는 아동복지재단에 50만 크로나를 제공하여 초,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될 성폭력 관련 수업 자료 및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도록 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8).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미투 운동의 열풍이 거세지면서 기존 정책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17년 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부를 해석하는 성폭력법 개정안을 법률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동안 스웨덴 법상, 강간은 협박

이나 폭력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범죄로 다뤄져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협박 및 폭력적 상황이 아닌, 그리고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폭력 사례를 기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총리 스테판 뢰벤은 이 개정안이 성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 개정으로의 첫걸음이라며 관련 법들의 추가 개선 및 강화가 뒤따를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차별방지법의 이행을 감시하는 평등 옴부즈만(Diskrimineringsombudsmannen)은 여성들의 고발, 폭로가 있었던 언론, 문화예술, 법률 산업 내 40개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 성적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규약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The Local, 2017c).

2018년 1월,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양성평등 문제의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새로운 양성평등기구를 설립하였다. 양성평등 장관 오사 레그네르는 이 양성평등 기구가 미투 운동으로부터 확산되는 새로운 여성 운동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좌파당, 녹색당, 페미니스트당의 대변인들은 양성평등 기구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The Local, 2017d).

■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불균형한 남녀의 권력구조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적 조치 확대, 불평등한 구조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충격에 비해 정부의 개선탄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의 미투 운동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앞서 다뤘듯, 스웨덴의 많은 학자들은 스웨덴의 미투 운동이 폭로, 고발에 그치는 단발적인 성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변화하는 이유로 스웨덴 사회가 다져놓은 토양을 꼽고 있다.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덕에 이번 미투 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 이후의 스웨덴 정부의 대응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현 스웨덴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임하며 양성평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의식하에 미투 운동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제도적 개선에 발빠르게 나서는 스웨덴 정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KLI

참고문헌

- Bloomberg(2017), “Sweden Says #MeToo”,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2-20/sweden-says-metoo>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8), “The Government of Sweden’s 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Retrieved May, 2, 2018 from <http://www.government.se/articles/2018/01/the-government-of-swedens-measures-against-sexual-violence-and-harassment/>
- OECD(2014), “Violence against women”,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data.oecd.org/inequality/violence-against-women.htm>
- Svenska Dagbladet(2017), “I maktens korridorer ser vi oss över axeln”,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www.svd.se/i-maktens-korridorer-ser-vi-oss-over-axeln>
-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2018), “Svensk metoo-rörelse störst genomslag i Norden”, Retrieved May, 2, 2018 from <https://www.genus.se/nyhet/svensk->

metoo-rorelse-storst-i-norden/

- The Local(2017a), “456 Swedish theatre stars share stories of sex harassment”,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www.thelocal.se/20171109/456-swedish-theatre-stars-share-stories-of-sex-harassment>
- _____(2017b), “Seven in ten think the #MeToo campaign will lead to change in Sweden”,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www.thelocal.se/20171204/seven-in-ten-think-the-metoo-campaign-will-lead-to-change-in-sweden>
- _____(2017c), “Equality watchdog to review 40 Swedish companies over harassment guidelines”,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www.thelocal.se/20171124/discrimination-watchdog-to-review-harassment-practices-in-40-swedish-companies>
- _____(2017d), “Swedish government debates #MeToo days after first meeting between the groups involved”, Retrieved May, 3, 2018 from <https://www.thelocal.se/20171211/swedish-government-debates-metoo-days-after-first-meeting-between-the-groups-involved>